



NO.2140

하늘 마음



2024년 6월 9일

연중 제10주일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창세 3,9-15

화답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3,20-35

영성제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스스로 죽이기 (자살)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레오 신부

우리는 학교나 주변에서 '자살'에 대해 주로 교육적인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 교육받는 그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살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에게도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느 순간 공허함과 동시에 그러한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찰나를 방지하고자 예방 차원으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만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도 아직 모르는 삶의 다양함이 있다.'라는 **희망의 말**을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되뇌어야 합니다.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자살은 스스로 죽기가 아니라 스스로 '죽이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인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도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내 판단 하에 내가 죽였으므로, 자살은 숨이 끊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라는 좁은 의미의 문제보다 삶에는 내가 아는 방법보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我.ego)라는 한계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에밀 뒤르켐 >
출처 : 위키백과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의 원인을 이기적 자살, 애타적 자살, 아노미(anomie)¹적 자살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으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웬지 나만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사회의 결합이 약해질 때 자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자살과 반대로 **애타적 자살**은 과도한 집단화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의무감이 강해져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등등 주변걱정들이 나에게 무거운 책임, 더 나아가서 압박감으로 바뀌어 우울감으로 느껴질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지 사회 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에 의한 자살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로 향하는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감정 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며 조금 더 나아가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입니다.

'스스로 죽이기' 전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희망 할 수 있는 존재인**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1) 아노미(anomie) : 공통된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상실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는 혼돈 상태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채널 추가하고 카톡으로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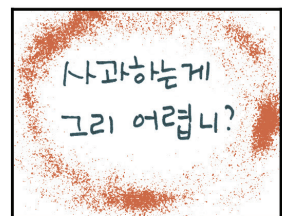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검색 - 친구추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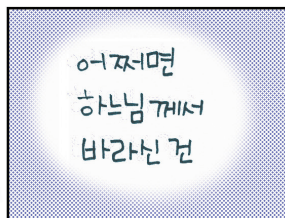
❖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나는 달라질거야. ♪



태어난김에 성당일주

이곳에도 미사가 있다고요? 고속터미널 성당 [서울대교구]



미디어부 부서원

교사 고유진 안나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어느새 푸릇푸릇한 6월이 되었네요. 여러분은 더운 여름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여름 하면 산과 바다,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설렘이 떠올라요.

휴가를 갈 때는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요. 서울에는 이곳저곳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그중 서울의 중심, 무려 지하철 3, 7, 9호선이 모두 다니는 서초구의 고속터미널역에는 성당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휴가를 가는 중에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이곳, 서울대교구 12지구에 속해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성당(이하 고속터미널 성당)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고속터미널 성당은 고속버스 경부선 본관 10층에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성당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성당 가는 길을 조금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성당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역 1번 출구와 연결된 야외 광장을 통해 경부선 터미널로 들어가야 해요. 지하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 왔을 경우에는 1번 출구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지하를 통해 경부선 터미널로 들어가면 편리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경부선 터미널로 들어온 후에는 안내데스크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성당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오르면 성당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바로 보여요. 표지판의 화살표를 따라 옥상으로 나와 조금만 걸으면 고속터미널 성당을 만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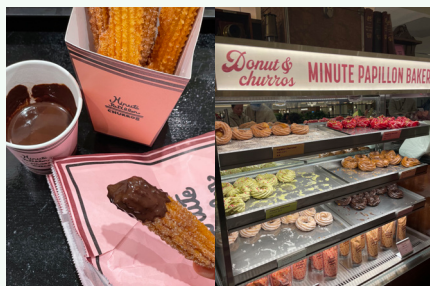


앞선 사진 속 표지판을 보면 고속터미널 성당의 미사 시간을 알 수 있기도 하지요? 고속터미널 성당에서는 터미널을 찾는 신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미사 시간을 정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고속터미널 성당에 갔을 때는 마침 13:30 토요특전 미사가 있어 미사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작은 성당 안과 밖을 가득 채워 웅기증기 모여 미사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놀랐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고속터미널을 가게 된다면 고속터미널 성당에 들려보세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돌아온 후에 여행으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미사를 챙겨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여행을 갈 때도 미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맛난 먹거리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고속터미널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밥으로 배를 채워봅시다!

처음 소개할 곳은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에 위치한 순대실록이에요. 이곳에는 특이하게 순대스테이크 메뉴가 있습니다. 돌 판 위에서 지글 지글 소리를 내며 나오는 순대스테이크를 자른 후, 제공되는 소스와 반찬을 곁들이면 평범한 순대를 특별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을 함께 먹는다면 여행 전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지요.



식사를 마쳤다면 센트럴시티와 맞닿아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보세요. 이곳은 근래 스위트 파크로 이름을 끌고 있는데요. 후식으로 스위트 파크에 있는 달달한 츠러스 맛집을 소개해 보려 해요. 바로 미뉴트빠빠용입니다! 미뉴트빠빠용의 인기 메뉴 중 하나는 초코 소스에 찍어 먹는 츠러스예요. 달콤한 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하지요. 이밖에도 츠러스를 도넛 모양으로 만든 츠로

넛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니, 입맛에 따라 골라 먹어 보아요.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한 후, 이제 곧 여름방학을 맞이 할 우리 친구들. 방학을 계획하는 즐거움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태생일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미사를 잘 챙길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우리는 더욱 청량해질 7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



복음자리

2024년 6월 9일 | 연중 제10주일

(마르 3,20-35)

사탄은 끝장이 난다. (마르 3,26)

새겨보기

마르코 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느님의 아들'이라 소리칩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행보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큰 흠집을 냄으로써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행동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욕심과 권력을 하느님께 내맡긴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